

9월 17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9월 17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 지표개선·弱달러에 랠리..다우 1.1%↑	뉴욕증시가 16일(현지시간) 경제지표 개선과 미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사흘째 랠리를 전개했음. 특히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은행주와 주택건설주가 급등했고, 달러화 약세까지 더해져 상품주와 에너지도 강세를 나타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108.30포인트(1.12%) 상승한 9,791.71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0.51포인트(1.45%) 오른 2,133.15를,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6.13포인트(1.53%) 상승한 1,068.76을 각각 기록했음. 뉴욕증시는 오름세로 출발했음. 개장전 발표된 8월 산업생산이 기대치를 웃돌며 경기회복 기대감을 자극했음. 8월 소비자물가지수도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오후에 발표된 9월 주택건설업체 체감경기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뉴욕증시는 오후들어 상승폭을 더욱 확대했음. 특히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경기민감주인 은행주와 상품주가 급등세를 보였고, 달러화 약세로 국제유가도 반등해 에너지주도 강세를 나타냈음. 여기에다 워렌 버핏이 CNBC 방송에 출연해 "미국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밝힌 점도 투자심리에 도움을 주었음. 특히 "주택시장이 지난 1년간 `드라마틱하게` 개선됐다"는 버핏의 발언에 주택건설주들이 급등세로 화답했음. 이날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블루칩 종목중에서는 주가가 오른 종목이 26개, 내린 종목이 4개로, 상승종목이 월등히 많았음.
워렌 버핏 "주택시장 드라마틱하게 개선"..더블딥 가능성도 일축	월가의 유명 투자자인 워렌 버핏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호전되고 있으며,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언급, 더블딥 가능성을 일축했음. 그는 특히 "9·11 사태와 같은 끔찍한 외생적 사건이 발행하면 모를까 경제가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블딥처럼)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핏은 또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음. 그는 "주택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며 "(예전보다) 훨씬 짐을 덜 짓고 있는 반면 (주택이 필요한) 미국의 가정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시장 (공급과잉)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핏은 특히 "미국의 주택가격 및 활동을 들여다 보면은 1년전보다 드라마틱하게 변했다"며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목	주요 내용
美 8월 산업생산 0.8% ↑..예상치 상회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의 8월 산업생산이 전월비 0.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임.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의 컨센서스로는 0.6% 증가가 예상됐었음. 전월인 7월 산업생산도 1% 증가한 것으로 상향 수정되었음. 7월 산업생산은 당초 0.5%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었고, 이같은 결과는 전날 "리세션이 끝나가고 있다"고 언급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에 부합하는 내용임. 특히 산업생산은 2007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음. 제니 몽고메리 스폿의 가이 레바스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이 개선세를 향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지출이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자본재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음.
9월 주택경기 체감지수 3개월째 상승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는 9월 주택건설업체 체감경기지수(HNI)가 1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수는 전월 수치 18보다 높아졌고, 블룸버그통신이 45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장의 컨센서스에도 부합했음. 특히 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했고, 9월 지수는 2008년 5월 이후 가장 높았음. 낮아진 주택가격과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으로 최근 주택판매가 늘면서, 주택경기 체감지수도 상승했음.
美 8월 근원 CPI 0.1% ↑..물가 `안정적` 평가	미 노동부는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비 0.4% 상승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가격이 4.6%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음. 연준이 주목하는 근원 CPI는 0.1% 상승하는데 그쳤고 근원 CPI는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임. 근원 CPI는 전년비 1.4% 상승했지만 이같은 상승폭은 2004년 1월 이후 가장 적었음.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옴. 나이젤 골트 IHS 글로벌 인사이트 이코노미스트는 "근원적인 인플레이가 여전히 잠자고 있다"며 "이는 연준에게 저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할 수 있는 큰 여지를 준다"고 평가했음.
국제유가 랠리..72달러 까지 상승	국제유가가 이틀째 급등세를 보이며 배럴당 72달러선에 올라섰음. 경기 지표 개선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감과 미 달러화 약세가 호재로 작용했음. 1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0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1.58달러(2.2%) 급등한 72.51달러로 마감했음. 미국의 8월 산업생산이 이번 리세션 기간중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점이 경기뿐만 아니라 원유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했음. 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낸 점도 원유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했음.
英 실업자수 14년만에 최대	영국의 실업자수는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해 본격적인 경기회복까지 지나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16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 보도에 따르면 5~7월까지 영국의 실업자수는 21만명이 추가로 증가해 총 247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같은 실업자수는 지난 199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 실업자 증가추세가 이전 석 달에 비해선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얼어붙은 고용사정이 해빙기에 접어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 영란은행(BOE)도 고용불안과 소비둔화로 경기회복이 매우 더딘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